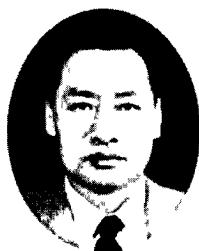




# 肝硬化와 治療方法

-양주 인화당 : 정상수 경험 처방집-

鄭 相 守



肝硬化의 经验处方

清肝解鬱湯++龍膽瀉肝湯

- 청간해울탕

出典은 東醫寶鑑 外形篇 卷三 乳門.

治 肝臟鬱火로 傷血하여 乳房結核 肝膽不和之證이다.

鬱結과 肝鬱로 因하여 筋肉이 疎結하고 筋肉硬化의 緊張을 緩和하는 데에  
有效함을 생각하고 사용하였음.

清肝解郁湯	補 气血 助 肝腸血	溫补脾胃하여 肝脾 均衡维持(土补抑肝)	清肝 解郁
	當歸 川芎 白芍藥 熟地黃 (一劑當三兩 120g)	人蔘 白朮 白茯苓 甘草陳皮 (二兩 80g)	柴胡 桀子(清肝熱) 牡丹皮 貝母(解郁) (二兩 80g)
龍胆瀉肝湯	清 肝熱	清肝 湿熱	
	柴胡 桀子 黃芩 (三兩 120g)	草龍膽 泽泻 車前子 生地黃. (三兩 120g)	當歸 (補 木) 甘草 (補土 和解) (三兩 120g)

### ● 용담사간탕

出典 東醫寶鑑 外形篇 卷二. 口舌門 外形篇 卷四. 前陰

#### -前陰 門-

治 肝腸濕熱 男子陰挺腫脹과 女人 陰挺이 瘡痒 或 陰莖濕痒으로 出 濕水하며 此因 酒 得之라.

#### -口舌 門-

肝熱 口苦(입에 쓴 물이 나오는 症) : 중의 이비인후과 耳鳴에 用한다고 하며 치료가능 함을 確認하였음.

#### 용담사간탕을 사용하게 된 이유.

經에 曰. 肝苦急하니 急食甘而 緩之하고. 肝臟은 陰藏 中 陽臟으로서 有餘를 恒常 恐한다. 용담사간탕은 肝經의 生殖器 炎症과 그 濕熱과 肝熱을 동시에 해소 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사용하였음.. 이중에서 車前子와 泽瀉는 간장의 습기를 업 세는 데에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 檢查로본 實質的인 診斷에 出現하는 現象.

초음파적인 간부위 경화 확인. 혈액검사에서 B형 항균 陽性반응 비장증대로 혈관을 압박하여 食道上에 정맥류 발생 등.

복약 경과 6개월 후에 증세가 완화하고 연속복약하고 약 2년후에 冬眠상태로 유지 現在(洋醫 病院에서는 韓藥을 服用 말 것을 종용)

#### 간경화의 주 證狀.

食慾不振. 消化不良과 眩暈과 腹痛 皮膚瘙痒 肝部位 壓迫感 黃疸. 말기에는 復水등으로 생을 마감하여야 함.

## ■ 肝硬化와 治療方法

肝硬化 및 硬變으로서 이름하고 있는 이 병은 한의학에서는 膽脹, 癥瘕 積聚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靈樞 水脹篇》에서는 腹脹에 身 皆大하고 色蒼黃 하고 腹筋而起 한다하고 있다.

肝硬化는 全身性 疾病으로 主要한 痘變으로 纖維組織이 增生하고 長期的인 進行過程에서 肝細胞가 變性하고 壞死 再生 假小葉이 形成하고 結果的으로 肝臟이 變形과 變硬하면 肝硬化로 命名 할 수 있다. 豫後는 肝機能 減退하고 門靜脈이 高壓하여 脾臟이 肿大하고 復水가 發生하고 腹壁 靜脈이 曲脹하고 食道와 胃低 靜脈이 曲脹破裂하고 吐血과 肛門 出血을 동반하고 肝性 昏迷가 發生한다.

### 中醫內科學 記載한 病理學 意見.

本病 多由 各種 肝病久延 轉變而成하며 肝爲藏血之臟하므로 性喜疏泄(정화작용)하고 肝病久延하면 失其條達(조달은 혈액공급을 못하여)하여 氣滯不利하고 且 肝氣又可橫逆乘脾하고 致肝脾不和하고 脾胃가 虛弱하여 진다. 若飲食不節하고 嗜酒過度 하면 可 滋生濕熱하리라. 在臨床上 表現으로 為胸脇脹痛하고 胃納不可하고 嘘氣, 惡心, 嘔吐, 便溏症狀이 나타난다. “由于“气为血帅”,氣行則血行하고 氣滯則血流不利하니 故로 氣滯日久以後에 可以 形成血瘀하고 而在臨床上見到 胸脇脹痛이 固定不利라. 脣舌紫暗과 或有瘀點等 瘀血等候하며 至其發展 由于脾虛不能運化水濕하여 氣血瘀滯하고 堕塞肝脾之脈絡이 而使水濕停滯하고 不得輸化하여 從而形成腹水한다. 至其末期하면 由于累及腎臟에 而使病情更加惡化하고 腎陽受損後에 由于 陽氣不足하고 水濕泛溢하여 而使腹水加劇이라. 損傷腎陰時에 則見肝腎陰虛하고 虛火上亢하면 甚至耗血動血하고 總之肝硬化早期라 多屬於肝脾的氣滯和血瘀하고 甚至腹水形成하며 多屬氣血凝滯하고 阻于肝脾之脈絡하므로 水濕停滯不化하고 而呈“本虛標實”(則 正虛邪實)이라 한다. 至其末期하면 多累及腎臟하고 而有脾腎陽虛和肝腎陰血不足的分別이라 或可二者兼而有之라.

## 痿 症

人蔘 當歸 熟地黃 白朮 白茯苓 白灼 藥 甘草 陳皮 (1제에 4兩씩)	知母 黃柏 (陰火 濉)
助血과 溫補 脾胃。 氣血을 补充하는 目的임	牛膝 杜仲 破古紙 (補 肝. 腎)

蔘歸養榮湯 出典 萬病回春 瘫論

### • 處方

人蔘 當歸 熟地黃 白朮 茯苓 白灼藥 陳皮 黃柏 知母 牛膝 杜仲 破古紙 甘草 等分(1제일 경우에 4양씩) 이 處方은 八珍湯에 가 補陰 劑를 為主하고 濉陰火 补 肝, 腎, 약으로 처방이 구성하였으며 筋痿에 많은 효과를 거둔 약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痿證과 治療 方法.

옛날부터 내려오는 格言이 있다. 千病万藥이란 用語는 우리 귀에도 푹 익어 있다. 병도 많고 약도 많다는 이 말은 우리는 약의 전문인으로서 그냥 받아 넘기기란 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약을 투여한다고 하여도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 할 지가 의문이다. 한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환자에게 임할 때가 있었으리라. 믿고 싶다. 복약자의 일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쏟아 부어도 불치의 병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가 궁금증으로 남아 있다.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성인 병도 그러하고 중풍과 癌과 같은 질환 등도 역시 이와 같은 類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 肝硬化와 治療方法

그러나 이와는 다른 특수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오장육부가 멀쩡한데 사지를 못쓰다면 이는 죽지도 않고 기가 막힐 일이다. 즉 우리 주변에 흔하지도 않는 瘦證은 순식간에 일어 설 수도 없고 사지에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지팡이도 소용이 없고 손끝하나 움직이기 힘든 이 병은 한번 걸리면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증을 고증하여 가면서 이 중에 대한 결과를 풀어 보기로 한다.

### [瘦 證]

#### 痩證의 特徵.

위증이란 모든 肢體와 肢節에 근과 맥이 이완 현상으로 수족이 연약하여지고 무력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날이 갈수록 근육이 위축 현상으로 돌아가는 아주 위협적인 질병이라 할 수가 있다.

痩는 萎 와 풀이를 할 수가 있고 즉 草木이 枯 하여 지는 것과 표현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 증세를 임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하지가 萎弱하여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환자가 많으며 옛날부터 이런 증세를 瘦躰즉 앓은뱅이란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벽은 발가락에 힘이 없고 땅에다 닿을 수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素問玄機病原式》에서 말하기를 瘦라는 疾病은 手足이 萎弱하여 힘이 없어지고 하여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內經痩論篇에서는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主要한 원인을 살펴보면

1. 過高한 悲哀와
2. 과도한 入房과
3. 水濕과

#### 4. 勞倦과

5. 濕熱등과 外感과 內傷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素問瘡論篇》은 폐열이 있어서 폐엽이 枯凋하느것을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폐가 건조하여 지면 오장에 진액을 분포가 어렵고 위증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역대 위병 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오고 있다

《三因極一病症方論. 五瘡敍述》에 천명 한 것을 보면 위병의 痘機上으로闡明한 위증은 五臟精血이 虛耗하고 榮衛가 失道하고 皮毛와 筋骨肌肉이 위약하여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금원시대의 장자는 폐열에 의한 폐 엽이 고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원인은 腎水가 心火를 견제하지 못하고 발병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화가 폐를 燥하여 즉 마르게 한 것으로 하고 있다. 위병은 寒證 이 아니다 고 한다.

《景岳全書 瘡證論》은 元氣敗傷 則 精虛不能灌溉라고 정리하고 있다. 혈허하여 영양을 줄 수 없는 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위증은 또한 모든 증에 화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나라 때의 臨證指南醫案에 나타난 것을 보면 肝·腎·肺·胃의 사장에 있는 병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기혈과 津液이 부족으로 筋脈에 진액을 灌注하지 못하여 발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증의 근거를 내경에서 살펴보면 皮, 脈, 筋, 肉, 骨 등 오위로 규정하고 皮瘡는 피모가 枯萎가 발생하고 혹은 咳嗽, 氣急의 증후를 동반하고 있다. 脈瘡는 下肢 등에 근육이 위축 무력한 증세를 보인다. 脛骨이 연약하여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膝踝關節이 屈伸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筋瘡는 입이 쓰고 손톱이 枯燥하며 筋急과 경련으로 점차로 근위약으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또한 宗筋이 이완하고 陽瘡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肉瘡는 근육이 마비 및 불안하고 瘫軟 무력하다. 骨瘡는 腰背가 瘫軟하고 直立이 어렵다 하지가 軟弱 무력하고 면색이 암흑하고 아치 등이 乾枯등이 증세가 있다.

이렇게 내경은 상세한 설명을 곁드려 지적하고 있다.

의종필독 위(醫宗必讀 瘦)에는 간과 폐와 심과 비와 신등의 오장의 위를 말하고 있다. 肺熱葉焦하여 오장의 음을 상하여 발병한다고 하고 있다. 총칭 하여 瘦蹙이라 하고 그 실질상의 설명은 내경의 오위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위증이 소견 상으로 봐서 위증이 오래되면 근과 육이 모두가 위증이 오고 골위인 경우는 근육이 위축이 현저히 나타난다. 그런고로 후세 醫學家들은 오위를 분류하지 않은 현상이 있다. 위증을 치료하는 데는 소문 위론 편에는 오직 양명(治瘦獨取陽明)을 다스리게 하고 있으며 다른 醫家들의 의견도 위와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본다.

위증을 근육과 신경계통으로 그 이완현상으로서 지체의 弛緩性 癱瘓으로 볼 수가 있다. 급성척수염과 진행성 근 위축과 중증 근 무력과 주기성마비와 근영양 불량과 癱病性 癱瘓과 연탄성 중추신경계통(軟癱性 中樞神經系統)의 감 염 후유증 등과 이런 等類의 患疾은 이편을 참고를 하기 바람.

### 병인(病因)

溫熱犯肺와 水濕浸漬와 飲食不當과 비위손상으로 볼 수 있고 肥甘厚味를 과식과 飲酒无度로 습이 내생하여 濕績蒸熱하여 濕熱이 侵淫筋脈하여 발생하고 이 외에도 久病으로 인하여 虛弱체질에서 발생하고 너무 많은 노력과 房事不節과 脾胃虛弱으로 인하여 氣血과 津液의 生化의 根源이 枯渴되어서 또한 精血이 虛耗하여 근맥과 근육이 失養하면 肢體가 瘦弱 不用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위증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분류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외감과 내상으로 오장의 기혈과 진액의 없어 저서 발병한다고 정립을 할 수가 있다.

병기(病機)적인 해설을 보면,

진액과 기혈과 정수가 휴모하고 근맥에 공급을 할 수가 없을 때에 발병하고 濕熱로 인하여 발병하고 즉 열이 범폐하여 인체에 진액과 영양소가 부족하여 위증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타당 할 것이다.

	病 証	痺 証	中 風
病 因	外感(溫邪 濕熱) 內傷(五臟 虧虛)	外邪(風寒 濕熱)爲主	內因爲主(風 火 痰 瘀)
病 位	筋脈、肌肉	關節、肌肉	經絡
症 狀 特 點	肢體痿軟不用 肌肉萎縮 以 兩下肢 為多見	肌肉 關節痠痛。 屈伸不利 或 後期關節強直失用 肌肉萎縮。	半身不隨 手足拘急 或軟弱 日久肌肉萎縮 手足肌形
疼 痛	不痛	疼痛	或 有 疼痛

위에 도표는 위증으로 유사 한 질병으로 3자의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표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 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外感은 초기에 실증으로 출발하고 내상과 久病은 虛症으로 출발하나 起病이 급하고 발전이 신속하고 筋肉萎縮이 명확하지 않으나 拘急과 瘡木과 疼痛이 겹칠 수도 있다. 또한 濕·熱·痰·瘀는 실증에 속하나 기병속도가 완만하고 痘程이 長久하고 지체가 이완불통하고 근육이 위축이 뚜렷한 것은 허증이라고 볼 수 있다.

위증의 치료는 虛症은 補養을 為主한 처방을 쓸 것이며, 實證은 祛邪를 為主하여 처방을 하여야하고, 濕熱로 인한 증은 清理濕熱약을 투여하고 虛症은 補養을 위주하고, 肝腎이 虧虛하면 滋養肝腎하고 瘡痰이 겹하여 있으면 祛瘀

## ■ 肝硬化와 治療方法

化痰通絡之劑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증이 발생하면 치료자들은 주로 중풍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드시 그 痘源을 찾아서 투약하여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경에 治瘉는 獨取陽明하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위를 조리하여 宗筋을 助養하라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치료방법은...

肺熱傷津에는 清熱潤燥하여 養肺生津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럴 때면 초기 위증은 發熱과 咳嗽와 頭痛과 全身筋肉의 疼痛하고 疼痛이 점차 나아지면 국소적인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濕熱獨邪가 범폐하여 肺는 宣肅을 못하여 發熱하고 頭痛과 咳嗽가 발생하고 피부가 건조하여지고, 津液은 피부 등에 濡養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내경은 말하고 있다.

### • 處方

沙蔴, 麥門冬, 百合, 黃精, 石膏, 蘆根, 天花粉, 杏仁, 桑白皮, 知母, 竹葉, 菁蒿, 梔子, 瓜萎, 貝母, 山藥, 石斛, 白朮 各 等分하여 사용한다.

지체가 점점 瘦軟무력하고 하지에 많이 瘰症이 나타나면 麻木과 微腫과 미열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변에 냄새와 丹赤하면 濕熱이 피부에 浸濕하여 경맥에 留住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혈이 阻滯하고 하지에 微腫과 무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淸熱利濕 과 疏通筋脈을 동시에 처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處方

蒼朮, 黃柏, 草薢, 防己, 薏仁, 澤瀉, 蟲砂, 木果, 牛膝, 五加皮, 역시 等分하여 사용한다. (가슴이 답답할 때에 厚朴, 茯苓, 陳皮를 가하고 이 처방은 痢証

과 瘦証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절이 불인할 때에는  
當歸, 赤芍, 桃仁, 紅花를 사용한다. 즉, 適이 가감이 가능하다.)

위증 대표처방은 蔘歸養榮湯 (出典 : 萬病回春 瘦壁論에서)

### • 處方

人蔘, 當歸, 熟地黃, 白朮, 茯苓, 白灼藥, 陳皮, 黃柏, 知母, 牛膝, 杜沖, 破古紙, 甘草 각 4량 혹은 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약의 양이 적으면 효과가 나오지 않음... “이 외에도 하체에 무력하고 老, 虛人の 기력회복에도 유효하고 소아의 발육이 부진으로 걸음이 부진 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성인 남녀의 피로가 심할 때에 葛根解肌湯을 합하여 사용하면 피로가 즉각 물러갈 것임...

(양주인화당)